



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 목장교회 나눔지

[6월, 마음에 새기는 말씀 - 로마서 5장 1절]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 얼음 깨기



‘오렌지 투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노랑 + 빨강 = 오렌지

[교회의 진리] [가정의 사랑] [하나님의일하심]  
다음의 질문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 1\_ 5월, 오렌지 투어로 함께하며 느낀 점은 무엇이었나요?
- 2\_ [우목소] 함께하는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했나요?
- 3\_ 우리 가정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었나요?

## 경배 찬양

## 하늘 소망

나 지금은 비록 땅을 밟으며 살지라도 내 영혼 저 하늘을 디디며 사네  
내 주님께신 눈물없는 곳 저 하늘에 숨겨둔 내 소망있네

보고픈 얼굴들 그리운 이름들 많이 생각나 때론 가슴 터지도록 기다려지는 곳  
내 아버지 너른 품 날 맞으시며 저 하늘에 짙아둔 내 소망있네

주님 그 나라에 이를 때까지 순례의 걸음 멈추지 않으며  
어떤 시련이 와도 나 두렵지 않네 주와 함께 걷는 이길에

## 소식

### 1. 도즈 사역

도즈 사역팀이 가까운 곳으로 소풍을 다녀왔습니다. 1층 사진 컨테스트  
함께하고 있습니다. 재미있고 의미있는 사진에 투표 참여해주세요.

### 2. 더비기닝 선교학교

선교적 삶은 모두의 사명입니다. 선교를 깊이 이해하고,  
현장을 살기 위한 선교학교에 모든 분들을 초청합니다.  
6주 훈련) 7/16~8/19, 주일 오후 5:30~9:00 현지 훈련) 8/19-8/25 캄보디아

### 3. 부모특강

“사춘기 자녀와 소통하기”로 부모특강을 진행합니다.  
일시 : 6월 17일(토) 2시-4시 장소 : 지하 다윗의 노래

## 교회행사

### 6월

- 3-4일 더함공동체 수련회
- 10일 결혼예비학교 종강
- 18일 어와나 1학기 종강
- 30-7/2 더원공동체 수련회

### 7월

- 15-16일 유아/유치/초등1여름사역
- 17-18일 더말씀으로-이지용목사
- 21-23일 중등부/고등부여름수련회
- 22-23일 초등2/초등3여름사역
- 28-29일 지역어린이 초청물놀이

## 선교

## [남윤정 선교사]

### 필리핀

1. 현지인 사역자가 세워지고, 경제적 자립, 일꾼들이 잘 세워지도록
2. 성도들의 신앙이 더 깊어지고, 넓어지고, 단단해지도록
3. 여러 명의 탑승이 가능한 승합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4. 가정을 지켜주시고, 각자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 한문장 큰 울림

믿음은 사람의 능력이  
끝나는 곳에서 시작된다.

조지 밀러 (1805-1898)  
영국 브리스톨 고아원 원장

##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로마서 8장 18절)

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믿음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이 곡은 '희망가'로 처음 시작은 찬송가로 국내에 처음 알려졌지만, 대중에게도 많이 불려지는 노래의 가사입니다. 신기한 점은, 교회 안에서 불리는 '희망가'는 소망을 품고 함께 사랑할 것을 노래하고 있지만, 변형된 가사엔 세상의 허무함과 희망 없음을 바라보고 있지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남다른 소망을 갖고,  
고난 중에 감사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 1\_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 (18-27절)

고난과 영광은 본문 전체가 말하는 주제입니다. 이를 통해 살필 수 있는 것은 고난은 영광에 이르는 길이기며, 둘은 절대로 분리될 수 없다는 것(17절)과 현재의 고난과 미래의 영광은 비교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18절)

여러분은 이 말씀을 읽을 때, **전적으로 동의하시나요?**

우리는 이 말씀을 알고 있지만, 실제 삶의 자리 속에서는 믿음만으로 살아내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26절)

우리는 기도를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지만, 성령께서 우리의 연약함(약함, 질병, 겁, 소심)을 '말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우십니다. 이렇게 성령께서는 세상과 교회의 고통에 동참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께서는 또한 우리를 바라보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 성령님이 곧 우리의 영원한 소망입니다.

[나눔] 내 삶 속에 있는 '고난'의 자리는 무엇인가요?  
모임 안에서 함께 나눌 수 있는 범위에서 나누어봅시다.

[질문] 지금도 나를 위해 '말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님을 매순간 느끼고 있나요?

### 2\_흔들릴 수 없는 하나님의 일하심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28절)

이 본문을 정확히 직역하면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의 선을 위하여 일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끊임없이 일하고 계십니다. 신앙 생활이란, 나의 열심과 힘으로 이등비등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힘을 빼고 '하나님의 열심' 앞에 순복하고 맡겨드리는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도록 미리 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날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29절) 또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우리를 세워가십니다.(30절)

[아심 => 정하심 => 부르심 => 의로움 => 영화롭게하심]

오늘 우리의 인생에 여러 어려움과 고난은 많지만, 하나님의 열심으로 이 모든 일들을 이미 행하셨고, 행하실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며 '하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근거는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의 열심과 성령의 간구 안에 나아가는 것이지요.

[나눔] '하늘소망' 찬양의 가사를 함께 살펴되며,  
가장 와닿는 내용을 함께 나누어 봅시다.

[기도] 사랑하는 목장 식구들의 어려움, 고난을 들었다면,  
'하나님의 일하심'과 '성령의 도우심' 안에 소망을 품고  
오늘을 살아가기를 같이 기도합니다.